



사랑방 문화클럽 웹 네트워크 오픈 및 클럽파티

# Club Party





“**성남**에는 어딜 가나 문화클럽의 모임이 있다네.  
그 모임에는 누가 극경꾼이고 누가 주인공이 없다네.  
모두가 주인공이고 모두가 극경꾼이 되어 준다네.  
시민들은 100년 후를 노래한다네.

**예술시민의 도시**, 성남에서 수많은 예술가와  
창조가들이 탄생하고 시민 모두가 문화예술의 삶을  
누리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아들 딸들이  
**사랑방 문화클럽**이 꽃피는 도시에서  
자랐기 때문이라네.”

- 01 | 인사말
- 02 | 사랑방 문화클럽은?  
문화클럽은 몇개나 있나요?
- 03 | 사랑방 문화클럽의 철학
- 04 | 사랑방 문화클럽의 향후 계획과 사업
- 05 | 사랑방 문화클럽 웹 네트워크
- 06~20 | 클럽소개





# 인사말

---

‘문화의 도시’란 어떤 것일까요?

우리나라의 대부분 지역에서 문화의 도시를 추구하고 있지만, 진정 그것이 무엇인가는 아직 답을 못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남은 향기 있는 문화도시가 실제 생활 속에서 시민의 문화 예술 활동을 바탕으로 뿌리를 내려가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1,000여개가 넘는 시민의 자발적인 문화예술 클럽들은 바로 ‘문화 도시 성남’의 주인공들입니다.

성남문화재단은 주인공들의 활동을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연습하고 발표하는 공간을 연결하는 이음새가 되고, 클럽들이 서로 만나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는 네트워크를 뒷받침하고자 합니다.

성남이라는 도시에 수많은 문화클럽들이 튼실하게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우는 날이 기다려 집니다. 그날 시민들은 문화예술의 향기를 한껏 만끽하며 향기 있는 문화도시, 성남의 시민임을 자랑스러워 할 것입니다.

---

성남문화재단 이사장 이 대엽  
성남아트센터 사 장 이 종덕

# Seongnam Cultural Foundation



>

## 01 사랑방 문화클럽은?

‘사랑방 문화클럽’은 성남 시민의 자생적인 문화클럽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조성하여 문화예술의 향기가 생활 곳곳에서 피어나는 성남을 함께 만들어 가고자 하는 성남문화재단의 프로젝트 이름입니다.

>>

## 02 문화클럽은 몇개나 있나요?

성남문화재단은 2006년 8월~10월에 걸친 4개월의 실태조사 결과, 무려 1,103개의 문화예술 클럽이 성남시에서 활동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실시한 이번 ‘기초자치단체 문화클럽 실태조사’는 아직도 무수한 문화클럽들을 발굴해내지 못한 1차 조사에 불과합니다. 성남은 문화클럽의 보고(寶庫)입니다. 성남은 향후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문화예술클럽의 도시가 될 것입니다.



&gt;&gt;&g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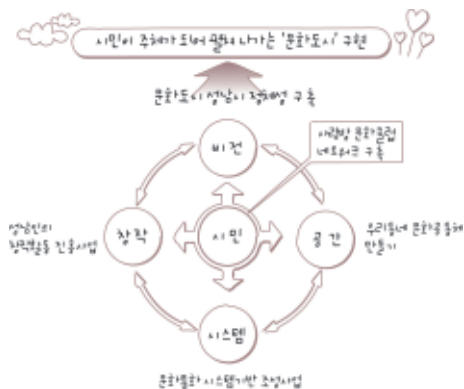
## 03 사랑방 문화클럽 철학

성남문화재단 문화정책사업의 핵심적 출발점은 '시민이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창조적 주체다' 라는 모토(Motto)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토가 단순한 슬로건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문화예술을 즐기며 누리는 '문화클럽'이 꽃필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근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남문화재단은 '시민이 주체가 되어 펼쳐나가는 문화의 도시, 성남'을 창조해 나가기 위해 5대 문화정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남문화재단 5대 문화정책사업 개념도>

문화도시를 꿈꾸는 성남문화재단은 시민들의 자생적인 문화클럽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조성하여 문화예술의 향기가 생활 곳곳에서 피어나는 성남을 함께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gt;&gt;&gt;&gt;

## 04 사랑방 문화클럽의 향후 계획과 사업

성남문화재단은 2020년 문화예술 창조도시를 목표로 15년의 중장기계획을 3단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 3개(2006~2008년)은 기반조성단계, 2단계 5개년(2009~2013년)은 발전단계, 3개년 7개년(2014~2020)은 성숙단계로 구분하고 1단계 기반조성을 가장 중요한 시기로 자리매김하고자 합니다.

### 2006

3단계 중장기계획을 위해 '성남시 문화클럽 실태 및 욕구조사'와 '사랑방 문화클럽 발전방안 연구'를 수행하여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전략과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 2007

사랑방 문화클럽 웹 네트워크를 오픈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문화클럽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30개의 문화클럽을 시범 선정하여 클럽파티와 문화클럽 리더 협의회를 통한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갈 것입니다.

### 2008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펼쳐지는 '사랑방 문화클럽 페스티벌'의 원년이 될 것입니다. 이 시기는 1단계 기반조성을 완성하는 시기로 웹 네트워크를 통한 온/오프 활동 시스템을 확산시키고 2단계 5개년의 발전단계로의 도약을 위한 준비를 동시에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gt;&gt;&gt;&gt;

## 05 사랑방 문화클럽 웹 네트워크

www.clubsb.or.kr



## 온라인사랑마루

- 사랑방 문화클럽 철학과 사업 소개
- 각종 사업 및 프로그램 공모
- 사랑방 문화클럽 멤버십에 참여하고 있는 사랑방, 사랑마당 등 파트너로 기재
- 웹진 : 정책 공시의 콘텐츠화, 문화클럽 이야기 취재/연작 등
- 운영내용 : 문화클럽 리스트 운영 관리, 공간 리스트 운영 관리, 공모 사업

## 온라인사랑방

- 문화클럽 및 문화공간 등록 신청
- 성남시 문화클럽 및 문화공간 찾기
- 문화클럽 홍보, 교류, 공동 프로그램 개발
- 공모에 선정된 사랑방 문화클럽 프로그램 소개
- 프로젝트 모임방 : 문화클럽 리더 협의회 커뮤니티, 공모 프로그램 커뮤니티 등

## 온라인사랑마당

- 지역 자원과의 네트워크 : 문화클럽과 예술가, 후원자, 공연기획팀, 지역 장터들과 연결
- 지역 축제 안내 : 소규모 행사, 문화클럽 공연 등 축제 소식 안내
- 온라인 작품마당 : 온라인에서 예술가와 만나거나, 자신의 작품 세계를 펼칠 수 있는 마당을 제공하고 문화클럽에서 창작한 최고의 작품들을 전시
- 품앗이 주고/받고 : 소외된 이웃을 위한 무료 자원봉사 모집, 문화클럽의 자원봉사를 필요로 하는 기관 등을 소개, 그 외 시민들끼리의 문화 교류



# Club Introduce

## 01 교사밴드 자율학습



### 선생님들의 완전한 자율학습

2002년 송림중학교 가요제 찬조출연으로 일회성 프로젝트팀으로 시작하여 2004년 꾸준히 악기를 다룬 선생님들과 송림중학교에 인연을 가진 사람들로 다시 결성되었다. 학교축제와 길거리공연, 성남 락 페스티벌, 모금행사 등 총 20여 회 정도의 공연을 했고 학교에서 일어나는 에피소드를 노래로 만들어 앨범을 내는 것과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공연을 해보고 싶다고 한다.

리더 : 박병준

## 02 꿈초롱아이들



### 꿈초롱 아이들의 첫번째 보물창고

2000년 공연단체를 등록하고 성남시 창작동요제에 처음 참가하여 은상 수상을 시작으로 많은 수상경력과 지난해 5월 삼성 리움박물관에서의 단독공연과 꿈초롱 아이들의 첫 번째 보물창고라는 CD도 제작했다. 형제, 자매가 같이 경쾌한 노래와 율동으로 듣는 사람과 노래부는 아이들 모두 신나는 모임이다.

단장 : 김양미





# Introduce Club

## 03 다솜벽화



### 성남 곳곳의 꿈꾸는 공간 만들기

대학에서 서양화를 전공하여 지금까지 끊임없이 작품활동을 하고 있는 조천일 씨는 국전 및 해외 교류전에서 수 차례 입상한 촉망 받는 대한민국 신진작가이다. 2006년 여름, '성남 삼성 어린이 집' 아이들의 놀이터인 옥상을 자원봉사로 벽화를 그렸으며, 공공의 공간을 꾸미는 일과 성남을 가꾸는 일이라면 기꺼이 봉사할 마음이 있다고 말한다.

대표 : 조천일

## 04 닥종이 인형 만들기



### 나만의 인형 만들기

2003년 금곡1동 주민자치센터가 문을 열기 시작하면서부터 시작된 '닥종이 인형만들기'는 매주 화요일마다 모여 '나만의 인형'을 만들고 있다. 현재 회원은 15 명이며, 모두 주부이다. 연령대는 30대에서 60대까지 다양하다. 2002년부터 2006년 상반기까지 일주일에 1회씩, '닥종이 인형 만들기' 회원들이 용인정신병원에서 환자들을 가르치는 자원봉사를 했다. 월드컵 시즌에는 함께 '축구선수'를 만들기도 했다. 이 작품까지 2006년 11월, 경기도 국제관광박람회에서 전시했으며 한국민속촌에서 2004년부터 3년 간 상설 전시를 하기도 했다.

강사 : 강명자



# Club Introduce

## 05 동네 B-boy



### 춤은 우리들의喜怒哀樂

분당정보산업고등학교 댄스 동아리로 활동한 원년멤버들이 이끄는 팀으로 고등학교 1학년부터 20세까지 현재 8명의 멤버로 이루어져있다. 분당 정자 청소년 수련관에서 함께 음악선곡부터 안무를 직접 구성하고 매일 연습하여 화려한 인상 이력으로 학생들 사이에서는 꽤 알려진 스타들이다.

회장 : 정재원

## 06 들꽃 독서회



### 책으로 맺어진 인연이 또 하나의 가족으로

분당정보문화센터의 도서관이 개관되면서부터 주부들을 중심으로 구성, 1년에 한번씩 새로운 회원을 모집한다. 지난 6년간 읽은 도서만해도 200권이 넘으며 지난 1년간의 선정도서를 보면 각종 이론서 및 사회 과학서, 역사서, 예술 관련 서적 등 회원분들의 내공이 심상치 않음을 한눈에 알 수 있다.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책을 통한 삶의 수다, 들꽃의 향기를 맡을 수 있다.

회장 : 문영란



# Introduce Club

## 07 무한포커스



### 모든 것이 피사체이죠

사진으로 알게 된 지인 11명이 모여 1991년에 만들어졌다. 20대에서 60대 까지, 현재 20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정기 전시회는 연 1회, 정기모임과 정기출사는 각각 월 1회, 독거노인 및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영정사진 봉사는 연 2회 진행하고 있다.

회장 : 송경식

## 08 분당 동화 읽는 어른모임



### 엄마가 고른 책, 동네 아이들이 함께 봐요

어린이도서관구회의 분당지회 회원들이 1주일에 한번, 발제자가 진행하는 가운데 선정된 어린이 책과 관련서적들을 비교하며 토론한다. 토론 이외, 우리나라의 시와 노래를 함께 읽고 부르기도 하며, '마음나누기'라는 시간에는 사는 이야기, 아이들 이야기, 영화 등으로 마음을 나눈다. 모임장소를 마련해주는 곳에서 매주 화요일 영,유아 대상으로 책 읽어주기 자원활동과 체험행사 진행 등 시민단체의 역할을 다하며 동네마다 '작은 도서관'을 만들자는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회장 : 김주희



# Club Introduce

## 09 분당 색소폰클럽



**일류 음악가의 초청음악회도 좋지만, 우리와 같은 아마추어들의 활동도 참 중요하죠**

색소폰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자발적인 클럽으로 40여명의 회원이 꾸준히 활동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무의탁노인시설과 여성장애인시설에서 봉사공연을 하고 있다. 클럽 정기 연주회는 4개월에 1회씩 열리며, 2005년에는 탄천 매통공원에서 공연하는 탄천 사랑 음악회를 열었다. 앞으로 실력있는 멤버들을 키워내고 조직하여, 자체 정기공연과 고아원, 양로원, 교도소 등 각종 사회시설에서 위문봉사공연을 하는 것이 분당색소폰 클럽의 꿈이다.

회장 : 임현욱 | 강사 : 이규항

## 10 분당여성합창단



**마음까지도 한 목소리를 내는**

1992년 만들어진 분당의 최초 합창단이며, 2006년 11월 23일 정기연주회까지 총 14년의 역사를 가진 '분당여성합창단'은 총 단원 수 35명, 연령대는 20대~50대로 분포되어 있다. 주로 활동하는 멤버는 30~40대 주부이다. 전국 규모인 한국합창제를 비롯하여 경기 합창제, 성남 합창제, 분당 예술축제 등 각종 합창제에 참가 했으며, 오스트리아 쾰른시와 태국에서 해외공연을 가지기도 했다. 봉사공연을 요청한 군부대, 병원에서는 가까이 위문공연을 펼쳤으며, 앞으로도 봉사를 요청하는 기관들이 있다면 꾸준히 공연을 하려 한다.

지휘자 겸 단장 : 박용기 | 부단장 : 배은선

# Introduce Club

## 11 분당 퀼트



### 한땀, 한땀 느낌의 미학

오랜 정성을 다하여 완성되는 퀼트는 한 땀 한 땀 바느질을 하면서 완성되는 기쁨과 느낌의 미학, 기량이 올라감에 따라 성취감까지 퀼트 뒤에 숨겨진 여러 가치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친목을 다시면서 함께 배우고 만드는 기쁨이 커 그 시간 모두를 가진 부자가 된 것 같다.

회장 : 오선희

## 12 붓나들이



### 마음의 여유를 붓글씨로 남긴다

금광2동 주민자치센터의 장수 동호회로 수요일, 금요일 오전 10명의 회원이 꾸준히 참석하여 서체를 다듬어 거듭 종이와 마음에 글귀를 새긴다. 성남시 주민자치 협의회의 축제, 프로그램 발표회로 1년에 2회 큰 전시회를 열고 있으며 바쁜 생활 중에 마음의 평안과 여유를 찾는 방법이 멀리 있지 않다고 회원들은 말한다.

강사 : 유선숙



# Club Introduce

## 13 블루그래스 음악클럽



### 가족들과 함께 연주하는 음악클럽

한국 블루그래스클럽은 1981년 10월 3일에 창립되었다. 블루그래스는 미국에서 1938년에 시작된 음악의 한 장르이다. 요들 클럽의 멤버들이 한국 블루그래스클럽의 초기 멤버이다. 악기는 만돌린, 기타, 더블베이스, 피들(바이올린), 도브로 등으로 구성되며 현재 8개의 밴드가 서울, 울산, 부산, 광주에 활동 중이다. 성남 및 분당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블루 마운틴 보이즈'는 순수 아마추어 밴드이다. 강습은 월 2회이며, 두 달에 한번, 셋째 주 토요일 저녁 7시에 수지시 고기리의 '블루그래스 하우스'에서 공연이 열린다.

총회장 : 김준섭 | 리더 : 석용기

## 14 산도깨비



### 가족들의 신명나는 한마당

2006년 4월 시작되어 전문화를 중심으로 지역 문화공간, 가족 문화공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가족단위 회원은 25가족이며 풍물, 판소리, 탈춤, 상모, 해금, 가야금, 태평소 강습이 주마다 정기적으로 열린다. 지역 백중제, 단오제, 나눔의 집 효 잔치 등 다수의 공연에 참여하였고 2007년 2월 25일에는 산도깨비가 주최한 '남한산의 어린이 지신 밝기'가 열릴 예정이다.

대표 : 권재형

# Introduce Club

## 15 성남 목관 앙상블



### 음악에 가진 열정이 삶의 만족으로

성남,분당에서 사회인 오케스트라 활동을 하고 있었던 연주자들이 주축이 되어 2006년 5월에 만들어진 목관악기 구성의 소규모 앙상블이다. 정규 멤버는 10명이며, 전공자 5명, 10년 이상의 연주자 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까지 거리공연 및 봉사공연을 약 30회가 넘었고 발표 및 공연을 통해 지역주민들과의 만남을 희망한다.

단장 : 유영미 | 부단장 : 김준석

## 16 성남 수화 사랑회



### 손으로 말하는 큰 세상

성남 수화 사랑회는 고문 남기운 씨가 경기도 농아인협회 성남시지부 사무장 시절, 2005년 10월, 약 10명의 학생들과 시작하였다. '수화사랑회'는 성남시 농아인들의 귀와 입이 되어주며 수화로 하나되는 세상을 위해 만든 모임이다. 수화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며, 공간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수화 스테디 모임을 더욱 활성화할 예정이다. 봉사활동으로 청각장애인 어르신 요양 시설인 '성 요셉의집'을 방문하여 말벗이 되어 드린다.

고문 : 남기운



# Club Introduce

## 17 성남 6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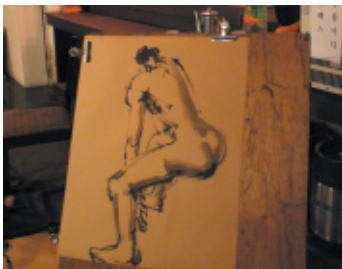
### 촬영에서 편집까지 내 손으로 한다

'성남 문화의집' 영상 편집반인 '성남 6mm'은 2005년 7월 이후에 만난 수강생들 모임이다.

현재 회원은 모두 10명으로 30대부터 80대까지 연령층이 다양하다. 수업은 개개인의 숙련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진행되며, 자신이 촬영하고 편집한 영상들을 회원들과 함께 보며 감상하기도 한다. 분당에 있는 공원으로 함께 출사를 나가기도 하며, 카페는 정보 및 자료 공유, 사고 파는 중고장터 등이 메뉴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역동적인 느낌을 주는 스포츠 및 댄스 대회의 행사 정보를 공유하는 모습이 이색적이다.

회장 : 김종남 | 강사 : 윤혜숙

## 18 성남누드크로키



### 인체, 세상에서 제일 자연스러운 곡선

크로키는 형태의 특징 및 입체감을 단시간에 포착하여 그리는 그림으로 모델이 포즈를 바꾸면 수많은 연필과 붓이 분주하게 움직인다. 도예가인 이규형님이 예술인들의 만남의 아카데미하우스 목적으로 2004년에 설립한 'cafe TopArts'에서 매월 둘째주 토요일 누드크로키모임을 만날 수 있다. 서로의 그림지도와 매월 다양한 장르의 문화공연을 맛볼 수 있는것도 또 하나의 자랑이다.

회장 : 유해일





# Introduce Club

## 19 성남분당포토웍



### 알려지지 않은 성남, 분당지역의 곳곳을 사진으로 담고 싶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도 홍보하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자부심도 가져보자는 취지로 시작되어 온라인회원 200명, 정기출사에 참여하는 20~30명의 회원이 매달 사진관련 정기교육을 진행한다. '분당중앙공원의 야경촬영'과 같은 주제로 생활의 일부분을 고스란히 담기위한 그들의 서터소리를 즐겨보자.

회장 : 김하용

## 20 성남장애인복지관 민화반



### 장애인을 위한 문화정책이 시급해요

'한국의 민화전'은 2001년부터 지속적으로 주최하는 민화반의 전시이름이다. 정신지체, 지체장애, 중도장애, 뇌병변장애들을 가진 10명의 회원이 활동하는 민화반은 성남장애인 복지관의 6년째 이어지는 프로그램이다. 원 그림을 본떠서 밑그림을 그리고 색상을 입히는 재미를 붙이면서 회원들의 밝아지는 모습을 보면서 장애인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꾸준히 개발되고 홍보가 되어, 많은 지원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밝혔다.

회장 : 유사용 | 강사 : 박순덕



# Club Introduce

## 21 싱글을 위한 요리사랑 & 요리봉사 성남모임



### 요리품앗이

요리에 관심이 있는 싱글족들이 정보를 공유하다 요리를 여럿이 먹고 나누면 좋겠다하여 봉사를 시작, 현재 정기적으로 '시운의집' 광주의 '나눔의 집' 이천의 '작은 평화의집'에서 요리봉사를 하고 있다. 봉사지를 결정하고 온라인으로 레시피를 공유하고 장을 보고 차량지원, 재료손실부터 설거지로 마무리까지 요리봉사가 서로를 위하고, 나누며 도움을 주고 받는 공익의 한 가지 형태로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한다.

모임지기 : 최은혜

## 22 알함브라 기타연주단



### 정오에 누리는 한 시간의 여유

2003년 11월 "알함브라" 기타 합주단은 한국기타연주회 성남지부에 의해 창단되었다. 클래식 기타 음악 문화 발전과 저변 확대를 위해 만들어진 합주단으로 단원의 대다수는 음악을 전공한 전문음악인들이다. 매년 2회의 정기연주회를 열고 있으며 2006년 하반기에는 '찾아가는 문화활동 - 공단에서 펼치는 정오의 음악회'를 열어 공단 및 공장을 직접 찾아가는 공연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

단장 : 김종원

# Introduce Club

## 23 엔클(nhn 클래식 동호회) 합주반



### 우리가 만드는 하나의 소리

엔클은 클래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며, nhn의 사내 동호회이다. 직접 악기를 연주하고자 모인 '합주반'이 소모임으로 있다. 총 회원은 127명이고, 이중 합주반에 참여하는 인원은 20명 정도이다. 작년 연말엔 nhn 직원을 위해 회사 카페테리아에서 공연을 하기도 했다.

회장 : 김용수

## 24 지구촌교회 시니어스쿨 워십팀



### 무용으로 표현하는 사랑

지구촌교회 시니어스쿨은 약 900여명의 어르신들이 가입되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이 중, 워십팀은 71세부터 75세의 아름다운 어머님들이 모여있는 곳이다. 정규멤버는 8명이며, 타 교회 노인대학 및 육군교도소 등에서 약 20회 이상 공연했다.

반장 : 고유근 | 감사 : 이성녀



# Club Introduce

## 25 자원봉사모임 / 천상연



### 봉사로 거듭나는 나의 삶

성남 터사랑청년회는 1989년에 만들어졌다. 천상연은 성남 터사랑청년회의 봉사반이다. 천상연은 자체적으로 기획하여 봉사활동을 하기도 하고, 각종 청년단체 및 지역기관들과 함께 기획하여 봉사활동을 하기도 한다. 몰래산타, 행복한 밥상, 사랑의 집수리, 농활, 수해복구, 도배봉사, 나눔의 집 봉사 등을 해마다 하고 있으며, 체계적이며 자발적인 봉사단체이다.

회장 : 김영범

## 26 청년대학 기행반



### 낮선 세상속으로 떠나는 여행꾸러미

1993년 청년대학의 10월 강좌에서 역사 기행반으로 시작하여 네이버에서 기행 후기로 오늘의 카페에 선정될 만큼 아마추어인들의 살아 숨쉬는 정보가 있다. 문화체험과 환경의 중요성까지 함께 깨우칠 수 있는 자리인 기행은 그 단어 앞에 사진, 체험, 생태, 미술 등을 붙임으로 참으로 다양한 것을 할 수 있다.

회장 : 박순정



# Introduce Club

## 27 풍물굿패 우리마당



**한번 맺은 인연, 영원히!  
우리 문화를 지키고 보급하는**

1993년부터의 긴 역사만큼 1월 해맞이 굿, 2월 대보름 굿, 6월 단오굿, 8월 백중제, 10월 가을굿 등 계절과 절기의 행사와 청년문화제 어린이날 행사 등 흥겨운 한마당도 많다. 강습하는 모습을 보면 장단과 가락이 우리의 마을을 동하게 하고 으쓱으쓱 어깨춤이 절로 나면서 마,,,술에 걸린 것처럼 당,,,책 안 올수가 없는 곳이라는 이야기가 이해가 된다.

회장 : 소원영

## 28 해동문인협회 성남·용인지부



**좋아하는 글로 만나서  
사람까지 좋아지는 곳**

해동문인협회는 1992년에 시작된 문인들의 모임이다. 전국적으로 14개 지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원은 약 300여명이다. 이 중 성남, 용인지부의 회원은 60여명이다. 성남, 용인지부 회원 중 40여명은 이미 등단한 작가이다. 문학을 사랑하고 문학에 대해 더 알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언제나 문이 활짝 열려있다. 회원들은 경기, 성남 등지에서 '방과후 교실'의 강사로 활약하고 있으며, 환경에 부응하는 초등학교생들에게 멘토링을 하기도 한다. 향후, 성남, 용인지부의 문집 발간이 목표이다.

지부장 : 우병택



# Club Introduce

## 29 Dream in 분당 PLAZA 「분플」



### 분당은 나의 Home Ground

2006년에 만들어진 분당지역 커뮤니티로,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친목과 문화 생활을 함께하자는 목적을 두고 만들어진 '분플'은 현재 분당에 거주하거나 직장을 다니는 20대, 30대 회원이 주를 이루며 테마모임으로는 와인 모임, 영화·연극모임이 있다. 와인클럽과 연계되어 와인만들기 체험행사도 열리고 있다.

회장 : 허태완

## 30 Roser Art Class



### 그림으로 세계를 보자

'미술 알고보기, 재미있게 보기, 생각하며 보기'라는 Roser Art Class의 안내문구이다. 그림을 중심으로 두고 주변의 여러 가지를 함께 볼 수 있는 눈을 기르자는 의미의 강의가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베이커리 카페 '소프라'에서 진행된다.

- 김명자 강사가 이야기하는 '그림읽는 Know-how'
1. 반복적으로 그림을 보라. 그림에 자꾸 말을 걸자.
  2. 그림을 보면서 그린 화가, 역사, 이론에 대해 공부하라.
  3. 내가 즐기고 좋아하는 장르를 그림과 접목시켜라.

강사 : 김명자



성남문화재단은

2007년 5월

30여개의 문화클럽을 공모하여

‘성남 사랑방 문화클럽 네트워크’ (이하 네트워크)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성남문화재단은 네트워크와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문화클럽의 활동을 지원하고

2008년 펼쳐질 ‘사랑방 문화클럽 페스티벌’의

기반을 조성할 것입니다.

문화예술의 향기가 생활 곳곳에서 피어나는

예술시민의 도시, 성남을 위하여!

사랑방 문화클럽을 위하여!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창조적 삶을 위하여!

